

# 2000년대 ‘세계의 공장’ 중국과 사상정치공작연구회

- 권익수호(维权)와 안정유지(维稳)의 문제를 중심으로

박철현(국민대)

---

## 〈목 차〉

- I. 서론
  - II. 2000년대와 「사상정치공작 연구회」
  - III. 학술지 『思想政治工作研究』 내용 분석
  - IV. 「안강 사상정치공작연구회」의 사례
  - V. 결론
- 

## I. 서론

2000년대 들어서 중국 경제는 연평균 GDP 9%를 상회하는 고속성장을 보였다.<sup>1)</sup> 2000~2010년 시기 2001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 이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GDP가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는 지난 1990년대 중후반 본격화된 국유기업 개혁과 단위체제 해체에 의한 산업구조조정, 기업파산, 노동자 해고, 실업증가, 복지제도 약화 등이 초래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의 사회적 약자의 저항이 ‘권익수호(维权)’의 형태로 표출되는 시기이

---

1) GDP 연 성장률은 세계은행(World Bank) 데이터 참고: 「GDP growth (annual %) - China」<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end=2010&locations=CN&start=2000> (검색일 : 2022년 3월 2일).

기도 했다. 권익수호를 위한 사회적 저항이 급증하여 국가 통치에 위협을 가할 정도가 되자, 중국공산당은 2004년 9월 16차 4중전회에서 「당의 집정능력건설 강화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통해서 ‘안정유지(维稳)’를 위한 방침을 제시한다.<sup>2)</sup> 2000년대 들어서 파업, 시위, 신방(信访) 등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권익수호에 대응하는 안정유지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가 되었다. 물론 이 보다 이전의 덩샤오핑(邓小平) 시대, 장쩌민(江泽民) 시대에도 안정유지는 중요했지만, 이때는 안정유지가 개혁과 사회주의 제도 유지의 전제라는 의미였다면, 2000년대 들어서 안정유지는 단지 조건이나 전제가 아니라 국가가 전력을 다해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 것이다.<sup>3)</sup>

본 연구의 목표는 권익수호와 안정유지가 국가의 이데올로기 연구와 선전을 담당하는 「사상정치공작 연구회(思想政治工作研究会)」의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sup>4)</sup>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1983년 중공중앙(中共中央) 서기처(书记处)의 비준을 거쳐서, 선전부(宣传部),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중화전국총공회(中华全国总工会) 등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개혁기 초기 기업과 공장 층위를 중심으로 노동자에게 체제전환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연구하고 선전하는 기구의 활동을 했다.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1980년대 제기된 ‘공장장 책임제(厂长负责制)’, ‘정당(整党)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中共中央关于整党的决定)’, ‘텐안먼(天安门) 사건’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국가의 공식 입장과 해석을 연구하고 이를 노동자들에게 선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본격적인 국유기업 개혁과 단위체제 해체가 진행된 1990년대 들어서도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시대에 적합하게 조직과 위상을 정비하고, ‘주식제(股份制) 도입’, ‘현대적 기업제도(现代公司制度)’, ‘정리해고(下岗)’, ‘주택제도’ 등 당시 노동자와 직결된 사회정치적

2) 「中共中央关于加强党的执政能力建设的决定」 [http://www.gov.cn/test/2008-08/20/content\\_1075279.htm](http://www.gov.cn/test/2008-08/20/content_1075279.htm) (검색일 : 2022년 3월 2일).

3) 장운미, 「중국 ‘안정유지(维稳)’의 정치와 딜레마」, 『동아연구』, 64권, 2013, 109~110쪽.

4) 1983년 설립 당시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의 정식 명칭은 「중국 직공사상정치공작 연구회(中国职工思想政治工作研究会)」였고, 2003년 「중국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으로 개명하여, 노동자만이 아닌 학생, 예술인, 위생인력, 연구인력 등 매우 다양한 사회적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정치공작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을 ‘노동자로 한정하고,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로 표기하기로 한다.

경제적 이슈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연구와 선전을 시행했다.

이렇게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의 역할이 각각 개혁기 초기 체제전환과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 선언 이후 진행된 본격적인 체제전환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한다면, 2000년대는 직전 시기 진행된 국유기업 개혁과 단위체제 해체가 초래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권익수호의 형태로 표출되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안정유지가 최우선 국정목표로 대두된 시기였다. 따라서 개혁기 국가 이데올로기를 기업과 공장 층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선전하는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2000년대 들어서 권익수호와 안정유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자신의 역할을 전개한다. 본 연구는 「사상정치공작 연구회」가 권익수호와 안정유지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기업과 공장 층위에서 어떻게 연구하고 선전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2000년대 들어서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투사한 이데올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상정치공작 연구회」 국내 연구는 2편으로 각각 개혁기에 들어선 1980년대 '노동자 교육'의 관점에서 국가가 조직하고 전개한 사상정치공작에 대한 분석, 국유기업 개혁과 단위체제 해체로 체제전환이 본격화된 1990년대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의 조직과 활동을 통해서 국가가 노동자의 불만과 저항에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대응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그 내용이다.<sup>5)</sup> 중국 측 선행연구는 매우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사상정치공작 연구회」가 당과 국가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 지도부, 간부, 노조, 노동자의 사상정치공작에 있어서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의 성과 및 역할, 구체적인 기업과 공장의 사례연구 등에 관한 연구가 압도적인 다수이다.<sup>6)</sup> 또한, 2000년대 권익수호와 안정유지와 관련된 연구도 사상정치공작의 선진적 사례, 사상정치공작의 중요성, 사상정치공작에서 당의 지도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대부분이다.

5) 박철현, 「개혁기 중국의 국가와 노동자 교육 : 1980년대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의 설립과 활동을 중심으로」, 『도시연구』, 제23호, 2020.; 박철현, 「중국의 체제전환과 「사상정치공작 연구회」 : 1990년대 도시 개혁 시기 국유기업 개혁과 단위체제 해체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제26호, 2021.

6) 중국의 대표적인 학술 데이터베이스 '중국 즈왕(www.cnki.net)'의 학술지(学术期刊)을 대상으로 제목(篇名)과 키워드(关键词)에서, '思想政治工作研究会(사상정치공작연구회)'로 검색한 결과 각각 1,984건과 108,309건이 검색되었고, '思想政治工作(사상정치공작)'으로 검색한 결과 각각 1,869건과 119,192건이 검색되었다.

하지만, 이들 선행연구는 2000년대가 직전 시기인 1990년대 본격화된 국유기업 개혁과 단위체제 해체의 결과, 지역 격차, 계급 격차, 도농 격차 등이 초래한 불평등과 차별에 저항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의 사회적 저항이 ‘권익수호’의 형태로 나타났고, ‘안정유지’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저항이 국가의 통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에 대응으로 나타났다는 비판적 관점의 분석이 배제되어있다. 다시 말해서,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전후하여 2000년대 들어서 급증하는 ‘권익수호’에 집정능력에 위기의식을 느낀 국가가 ‘사회안정이 모든 것을 압도한다(稳定压倒一切)’는 관점에서 ‘안정유지’를 위해서 전개한 것이 이 시기 「사상정치공작 연구회」 활동의 본질이라는 점이 배제되어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사회의 ‘권익수호’에 대응하는 국가의 ‘안정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 기구로서의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전개한다. 특히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학술지 『思想政治工作研究』에 게재된 관련 논문에 대한 내용 분석과 더불어, ‘안산강철(鞍山钢铁)’이라고 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중공업 기업 소속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의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전국적이고 국가 층위의 분석이 가지는 추상성을 기업 층위의 분석이 가지는 구체성과 결합시키고 이를 통해서 2000년대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의 전체상을 그려보고자 한다.<sup>7)</sup>

본 연구의 연구 대상 시기는 후진타오(胡锦涛) 정부 시기(2003~2013)와 대체로 일치하는데, 이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이전 시기인 장쩌민 정부 시기(1989~2003) 본격적인 국유기업 개혁과 단위체제 해체가 초래한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후진타오 정부 시기에 들어서 권익수호의 형태로 집중적으로 표출되었고 국가는 이에 대응하여 안정유지를 국정 목표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상 이미 1990년대 말부터 국가는 기업과 공장의 노동자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가입이 가져올 변화와 관련된 이데올로기 투자를 시작하기 때문에 1990년대 말도 연구 대상 시기에 포함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서론에 이어서 II장에서는 1980년대 및 1990년대와 구별되는 2000년대의 사회정치적 경제적 특징을 개괄한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 진행

7) 안산강철에 대해서는 IV장을 참고.

된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의 조직과 위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1980년대 및 1990년대와의 차별성을 밝힌다. III장에서는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思想政治工作研究』 게재 논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의 초점인 권익수호와 안정유지 담론과 관련해서 국가가 어떠한 이데올로기 투사를 했는지 분석한다. 여기서는 ‘당 건설과 사상정치공작의 중요성’, ‘삼개대표론 및 과학발전관 등 당시 국정이념’, ‘기층 당 조직 및 노조의 역할’, ‘합법성과 법률적 보호’ 등 2000년대 제기된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권익수호와 안정유지에 관한 국가 이데올로기를 분석한다. IV장에서는 랴오닝성(辽宁省)에 소재한 초대형 국유기업 안산강철 소속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의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권익수호와 안정유지와 관련하여 기업과 공장 층위에서 국가가 투사한 이데올로기 내용을 분석한다. V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고, 2000년대 첫 10년을 지나서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화되고 중국 경제의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2010년대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II. 2000년대와 「사상정치공작 연구회」

1990년대 본격화된 국유기업 개혁으로 기존 국유기업의 상당 부분이 사영화(privatization)되었고, 노동자는 노동계약에 기초한 임금노동자가 되면서 실업이 증가하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또한, 단위체제 해체로 복지제도도 약화되어, 교육, 의료, 주택, 문화 등의 복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들어서 더욱 심화되었다. 경제는 연평균 9%를 넘는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중국의 지니계수는 2000년 이후 0.4를 넘어서 계속 증가하여 2008년에는 0.491로 정점을 찍었고 2015년 0.42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다시 증가하여 2019년에는 0.465에 달했다. 이는 같은 시기 상당한 심한 소득 불평등을 보인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0.51), 페루(0.48) 등과 유사한 수준이며, 가장 심한 소득 불평등을 보인 브라질 및 온두라스(0.56~0.57)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소득

불평등의 원인은 빈곤 집단보다 부유한 집단의 소득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점, 도농 소득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 주택 등 사유재산에 의한 자산 형성 등이었다.<sup>8)</sup>

이러한 불평등과 차별에 저항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수호를 위한 집단행동이 시위와 파업은 물론, 분신과 관공서 습격 등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로까지 표출되었다. 국가는 권익수호에 대응하여 중앙에 정법위원회(政法委员会)-중앙안정유지영도소조(中央维稳领导小组)-중앙사회치안종합치리위원회(中央社会治安综合治理委员会)를 중심으로公安, 법원, 검찰원, 국가안전부 등 각 직능부문이 결합된 안정유지 기구를 구성하고, 각급 지방에도 이러한 안정유지 기구를 확대 설치했다.<sup>9)</sup> 동시에 이러한 안정유지의 비용도 증가하여, 2011년 경찰, 국가안보, 무장경찰, 법원, 교도소 등 안정유지 관련 기구 예산이 인민해방군(人民解放军) 예산을 초월할 정도였고, 이는 곧 2000년대 들어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수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안정유지 비용도 국방예산을 초월할 정도로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0)</sup>

서문에서 언급한 2004년 9월 16차 4중전회의 「당의 집정능력건설 강화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정」은 곧 안정유지가 매우 절박하고 중대한 문제라는 공산당의 위기의식을 보여준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정법위원회-중앙안정유지영도소조-중앙사회치안종합치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과 방의 각급 당과 정부에 구축되는 안정유지 ‘기구’를 설립하여 권익수호에 대하여 정치적 행정적 대응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권익수호에 대하여 ‘이데올로기적 대응’을 하는 것이었고, 이는 곧 사상정치공작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1983년 설립 취지가 보여주듯 기존 계획경제와 계급투쟁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주의 시기와 달리 사회와 경제의 시장화를 특징으로 하는 개혁기에 들어선 중국에서 당-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연구하고 노동자에게 선전하는 기구로서 1980

8) Terry Sicular, "The Challenge of High Inequality in China", *Inequality in Focus*, August, 2013. 지니계수는 다음을 참고. 「Gini index: inequality of income distribution in China from 2004 to 2019」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50400/inequality-of-income-distribution-in-china-based-on-the-gini-index/> (검색일: 2022년 3월 1일).

9) 장윤미, 2013, 116~118쪽.

10) 2011년 안정유지(state protection) 예산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고. 「China internal security spending jumps past army budget」 <https://www.reuters.com/article/us-china-unrest-idUSTRE7222RA20110305> (검색일: 2022년 3월 1일).

년대와 1990년대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들에 적극 대응했다. 따라서, 2000년대 권익수호와 안정유지의 문제가 초래한 국가 위기의식의 해결에 있어서도, 안정유지 '기구'의 역할만큼이나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의 이데올로기적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2000년대 국가는 권익수호와 안정유지와 관련해서 정치적 행정적 대응과 더불어서, 기업과 공장 층위에서 발생한 각종 이슈에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를 이용한 적극적인 이데올로기적 대응이 필요했던 것이다.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1983년 1월 18일 베이징(北京)에서 '비영리성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이사회에서 「중국 직공 사상정치공작 연구회 장정(中国职工思想政治工作研究会章程)」을 제정했으며, 설립 주체는 중공중앙 선전부(宣传部), 중공중앙 서기처(书记处) 연구실,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중화전국총공회였다. 2010년 12월 28일 현재 74개의 단체회원이 소속되어있는데, 단체회원에는 31개 행정구,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产建设兵团), 42개 전국적 업종의 「사상정치공작 연구회」가 포함된다.<sup>11)</sup>

1983년 설립 이후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해당 시대의 요구에 적합하게 위상과 조직의 변화가 있었다. 국유기업 개혁과 단위체제 해체가 본격화된 1990년대에 들어서 '중앙기구 편제위원회(中央机构编制委员会)'는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의 기구 개혁방안을 발표하여, 공산당과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의 관계를 기존의 추상적인 '당의 지도'에서 구체적인 '행정적인 지휘와 복종'으로 전환하고, '3년 연구계획'을 통해서 체제전환의 목표로 1992년 제시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의 실현을 위한 연구과제를 명시한다.<sup>12)</sup>

2000년대 들어서도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위상과 조직에서 일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2002년 중앙기구편제위원회는 「중국 직공 사상정치공작 연구회 기관 주요 직책 내설기구 인원 편제 방안, 이하 방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은 중공중앙 선전부의 지도와 일반적인 인원 편제 원칙을 정한 후, 특히 직책과 관련하여 7가지 항목을 열거하고 있

11)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의 설립 및 연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中国思想政治工作研究会历史沿革」 [http://siyanhui.wenming.cn/syzhq/jggk/201012/t20101228\\_39948.shtml](http://siyanhui.wenming.cn/syzhq/jggk/201012/t20101228_39948.shtml) (검색일: 2022년 2월 28일)

12) 1990년대 「사상정치공작 연구회」 위상과 조직의 변화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박철현, 2021, 159~161쪽.

다.<sup>13)</sup> 이론과 실제를 결합시켜서 기초조사를 진행한 후 중앙에 보고, 과제연구와 전문 연구를 중심으로 이론을 실제 현장에 응용한 연구, 맑스주의 입장에서 당의 사상정치공작의 경험과 전통 및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결합시킨 연구, 우수 연구 단위 및 개인에 대한 표창과 격려, 정공간부(政工干部)의 배양과 훈련, 주관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진행, 국제적인 학술교류. 「방안」의 7가지 직책 항목 중 6가지는 기존에 있던 것이고, ‘주관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진행(所主管的有社会团体进行监督和管理)’이 중공중앙과 국무원 지도부의 의견으로 새로이 추가되었다.

2003년에는 정식명칭을 기존의 「중국 직공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에서 「중국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로 바꿨다. 2005년에는 「중앙 선전부 사상정치공작 연구소」를 설립했고, 2009년에는 지도기구를 재구성하여 18개의 부회장 단위, 74개의 단체회원으로 구성되었다.<sup>14)</sup>

2000년대 이뤄진 「방안」 발표, 「중국 사상정치공작 연구회」 개명, 「중앙 선전부 사상정치공작 연구소」 설립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분석된다.

「방안」의 7가지 직책 중 ‘주관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진행’은 「사상정치공작 연구회」가 소속 사회단체의 사상정치공작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진행하여 해당 사회단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익수호와 안정유지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국방예산을 초월할 정도로 권익수호가 폭증한 상황에서, 「사상정치공작 연구회」가 실제로 소속된 사회단체에서 안정유지와 관련된 연구와 선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뿐 아니라, 사상정치공작의 성과에 대해서도 해당 사회단체의 관리와 감독을 책임지게 함으로써, 국가는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를 통한 사회단체에 대한 장악력을 제고하겠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사회단체(社会团体)’는 ‘일정 숫자의 사람들이 설립한 종교, 과학기술, 문화,

13) 褚克艰, 「中央编办确定中国职工政研会机关机构改革方案」, 『政工研究动态』, Z1, 2002.

14) 18개 부회장 단위는 다음과 같다. 중앙중공선전부, 중앙중앙조직부(中共中央组织部), 중앙정책연구실(中央政策研究室), 중앙당교(中央党校), 교육부, 민정부(民政部),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문화부, 국가광전총국(国家广电总局), 신문출판총서(新闻出版总署), 농업부, 국자위(国资委), 중국사회과학원, 국가행정학원, 해방군총정치부선전부(解放军总政治部宣传部), 전국총공회(全国总工会), 공청당중앙(共青团中央), 전국부련(全国妇联); 한편, 74개 단체회원은 31개 행정구,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产建设兵团), 42개 전국적 업종.

예술사업, 자선사업 등 분야의 조직을 가리킨다.<sup>15)</sup> 이 사회단체는 1990년대 말 18만 개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여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사를 표출하는 주체가 되었다. 따라서,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기업과 공장'의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과거와 달리, 2000년대 들어서 증가한 문학인, 과학기술인, 작가, 학계, 장애인, 기자,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사회단체도 사상정치공작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로의 개명도 이러한 사회정치적 변화에 적합하도록 이뤄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앙 선전부 사상정치공작 연구소」 설립은 사상정치공작의 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서 이뤄진 전문성 강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안정유지', '권익수호' 관련하여 2000년대 제기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학술지 『思想政治工作研究』 게재 논문의 내용분석을 진행한다.

### Ⅲ. 학술지 『思想政治工作研究』 내용 분석

『思想政治工作研究』은 중공중앙 선전부가 주관하고 「사상정치공작 연구회」가 발행하는 학술지로 1983년 창간되었다. 덩샤오핑이 제호를 쓴 『思想政治工作研究』의 창간호 발간사는 이 학술지의 위상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16)</sup> “학술지의 창간 취지는 1982년 9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12차 전국대표대회 정신을 관철시키는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국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목표는 사상정치공작에서 ‘당의 지도’ 원칙을 계승하여 노동자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광범위한 정공간부(政工干部)의 정치적 소양과 업무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sup>17)</sup>

발간사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마오쩌둥 시대 특정 “반당집단(反党集团)”이 사상정치공작을 지도하여 “좌경오류”를 범한 역사를 명심하고,

15) 「社会团体」·<https://baike.baidu.com/item/%E7%A4%BE%E4%BC%9A%E5%9B%A2%E4%BD%93/117608?fr=aladdin> (검색일: 2022년 3월 1일).

16)本刊编辑部, 「发刊词」, 『思想政治工作研究』1期 1983.

17) 정공간부는 사상정치공작 담당 간부를 가리킨다. 특히 기업 내부에 설치된 정공간부는 ‘정공사(政工师)’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政工师」<https://baike.baidu.com/item/%E6%94%BF%E5%B7%A5%E5%B8%88/7699451?fr=aladdin> (검색일: 2022년 3월 1일).

공산당이 사상정치공작 지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것은 장칭(江青) 등의 ‘사인방(四人幫)’이 계급투쟁 일변도의 사상정치공작을 주도하여, 노동자 집단의 과격한 행동에 의한 국가기구 파괴, 노동자의 생산현장 이탈,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대립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개혁기에는 공산당이 사상정치공작을 직접 통제하여 과거와 같은 폐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개혁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산당의 노동자 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자임했다. 이는 과거 사회주의 시기 이념적으로 노동자를 “공장의 주인”으로 규정했던 것을 폐기하고, 노동자를 시장경제 시대에 적합한 ‘임금노동자’로 새로이 규정하고 1980년대 당시 제기된 ‘공장장 책임제’ 등과 같은 효율과 이윤동기를 중시하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이 학술지가 담당하겠다는 것이다.<sup>18)</sup>

다음은 『思想政治工作研究』의 ‘권익수호’, ‘안정유지’에 관련 논문의 내용을 주제별로 몇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한다.<sup>19)</sup>

첫째, 안정유지에 있어서 당 건설과 사상정치공작의 중요성이다. ‘중국런민대학(中国人民大学)’ 교수 류젠진은 사상정치공작이 ‘돌발사건(突发事件)’에 대응하여 사회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사상정치공작이 돌발사건의 ‘발생 전’, ‘경과 중’, ‘종료 후’의 3단계에서 각각 담당해야 할 역할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사상정치공작은 ‘사회적 응급기제(社会应急机制)’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최근 빈발하는 ‘군체성 사건(群体性事件)’에 대응하는 매우 중요한 대책으로 자리매김한다.<sup>20)</sup>

종주치(钟祖企)는 2002년 4월 중공중앙 조직부가 「국유기업 당 건설 공작의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 연구」라는 중점과제를 하달하여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中国石油天然气集团)을 포함한 11개 단위에 관해 진행한 조사연구 결과를 분석하면서, 세계무

18) 박철현, 2020, 169~170쪽.

19) 내용 분석을 위해서, ‘중국 즈왕(www.cnki.net)’의 『思想政治工作研究』 홈페이지 ‘篇名’, ‘维稳’, ‘稳定’, ‘权益’, ‘维权’ 科学发展观으로 검색한 결과, 모두 171개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필자는 171개의 논문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논문 29개를 다시 추출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https://navi.cnki.net/knavi/JournalDetail?pcode=CJFD&pykm=SSGZ> (‘중국 즈왕(中國知網)’의 『思想政治工作研究』 홈페이지)

20) 刘建军, 「思想政治工作应对突发事件维护社会稳定的对策性思考」, 『思想政治工作研究』, 2009年9期.

역기구 가입이 초래한 사회경제적 내용, 조직형식, 취업방식, 이익관계, 분배방식 측면에서의 변화가 노동자 사상정치공작에 심대한 도전이란 점을 지적한다. 그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나타난, 노동자의 단위 의존도 약화, 소득 격차 심화, 정리해고 증가, 당과 정부에 대한 노동자의 '신뢰위기(信任危机)', 배금주의와 향락주의의 팽배 등 현상을 지적하면서 무엇보다도 기업 사상정치공작의 중요하다고 지적한다.<sup>21)</sup>

1999년 11월 28일 개최된 '전국 국유기업 사상정치공작 연구토론회'에서 중공중앙 선전부 상무부부장(常务副部长) 류원산은 '애국주의', '집체주의', '사회주의' 교육이 국유기업 사상정치공작의 기초 이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당 조직 건설(企业党建)'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당시 사상정치공작이 미처 포괄하지 못하는 지역, 부문, 업종의 기업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당 건설을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당시 폭발적으로 증가한 새로운 경제조직과 18만 개의 사회단체에도 당 건설과 사상정치공작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sup>22)</sup>

이렇게 『思想政治工作研究』 게재 논문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내내 사상정치공작이 권익수호와 안정유지에 대한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대응이며, 그 주체는 공산당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당시의 '국정이념'에 의거하여 권익수호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당이 주도하는 기업에 대한 사상정치공작은 단지 추상적인 '애국주의', '집체주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더욱 구체적인 당시의 사회정치적 경제적 조건에 대응하는 '국정이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주치는 조사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장쩌민의 '삼개대표(三个代表)' 사상이 국유기업의 당 건설 작업과 사상정치공작의 지도 사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는 구조조정, 조업 정지 및 파산, 경영 곤란 등의 상황에 부딪친 기업들에 대한 사상정치공작은 안정유지의 관건적인 내용이므로, 이들 유형의 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상정치공작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sup>23)</sup>

21) 钟祖企, 「关于国有企业党建工作新情况新问题的调研报告(上)」, 『思想政治工作研究』, 2003年3期.

22) 刘云山, 「在国有企业思想政治工作研讨班上的讲话」, 『思想政治工作研究』, 2000年1期.

23) 钟祖企, 「关于国有企业党建工作新情况新问题的调研报告(下)」, 『思想政治工作研究』, 2003年3

‘청두항공기공업그룹(成都飞机工业集团)’ 노조의 펑마오취안(彭茂全)은 이 기업에서 노동자의 권익수호가 ‘삼개대표’ 사상과 「노조법(工会法)」에 의거해서 진행되었다는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그는 다양한 노동자 권익수호의 핵심은, 기업에서 노동자의 정치적 지위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고, 직공대표대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기업관리 참여권을 보장하며, 직무교육 기술교육을 통해서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었다는 경험을 소개하면서, 그 지도 사상은 바로 ‘삼개대표’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sup>24)</sup>

주지하다시피, 2002년 16차 당 대회를 통해서 당장(党章)에 삽입된 ‘삼개대표’는 공산당이 ‘선진생산력’, ‘선진문화’, ‘인민의 근본이익’ 3가지를 모두 대표한다는 의미로, 1978년 이후 25년 가까이 진행된 개혁개방의 결과 중요한 사회적 집단으로 부상한 자본가와 중간계층을 체제 내로 수용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즉, ‘삼개대표’는 성장하고 있는, ‘선진생산력’, ‘선진문화’를 대표하는 자본가, 중간계층(관리직, 전문기술자 등)을 공산당의 주요 기반으로 수용하여 지지세력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미이다.<sup>25)</sup> 이렇게 볼 때, ‘삼개대표’를 통해서 기업과 공장 층위 노동자의 권익수호에 대응했다는 것은, 곧 공산당이 이제는 과거와 같은 ‘노동자 계급만의 정당’이 아니라 자본가와 중간계층까지 포괄하는 정당이며, 이제는 노동자도 노력하면 자본가와 중간계층이 될 수 있는 시장경제의 시대이므로 노동자는 ‘국민 정당’이 된 공산당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 또 하나의 중요한 국정이념은 바로 ‘조화사회(和谐社会)’와 ‘과학발전관(科学发展观)’이다. 조화사회는 2004년 9월 공산당 16차 4중전회에서 사회발전의 목표로 제시된 것으로, 핵심내용은 30년 가까운 개혁개방기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지역 격차, 도농 격차, 계층 격차에 기인한 사회적 저항이 증가하자,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서 격차가 가져온 사회정치적 경제적 모순을 해결하고 조화로운 사회 건설하자는 후진타오 시대의 국정이념이다. ‘과학발전관’은 이러한 조화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방법론 인식론이다. 따라서 ‘조화사회’와 ‘과학발전관’은 2000년

期.

24) 彭茂全, 「用“三个代表”统领维权工作」, 『思想政治工作研究』, 2003년 2기.

25) 이희옥, 「3개대표론과 중국사회주의의 변화」, 『중국학연구』, 26권, 2003.

대 권익수호와 안정유지에 대응하는 사상정치공작의 내용이 된다.

저우뉘강은 현 단계 중국 '인민 내부의 모순(人民内部的矛盾)'을 물질이익 모순, 군체성 사건 급증, 분배 불공정 등으로 지적하고, 특히 시장기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균형적인 이익분배 구조를 통해서 노동에 따른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방법론적 인식론적 기초는 곧 '과학발전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sup>26)</sup>

이처럼 2000년대 권익수호와 안정유지와 관련된 사상정치공작은, '삼개대표', '조화사회', '과학발전관'과 같은 당시의 국정이념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사상정치공작에 있어서 기층 당 조직과 노조의 중요성이다. 앞서 안정유지에 있어서 사상정치공작의 중요성과 사상정치공작의 내용이 되는 당시의 국정이념을 강조하는 논문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체'의 문제이다. 물론 「사상정치공작 연구회」가 사상정치공작의 직접적인 주체이지만,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공장이라는 특정한 단위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사상정치공작이 현장에서 실천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와 함께 사상정치공작을 전개하고 권익수호와 안정유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주체가 필요한 것이다.

'베이징시 총공회 연구실(北京市总工会研究室)' 허광량은 조화로운 노동관계는 모든 조화사회 건설과 노동자 안정유지의 기초라고 전제하고, 노조는 균형 잡힌 노동관계를 만들고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는 직접적인 주체이며 동시에 노동관계를 조정하는 사회조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즉, 노조는 자본과의 단체협상을 통해서 임금과 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는데, 현재 중국의 상황에서 상당수 노동자는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조를 통해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26) 周多刚, 「正确处理人民内部矛盾是构建和谐社会的重大课题」, 『思想政治工作研究』, 2006年3期. 이외에도 권익수호와 안정유지와 관련된 사상정치공작에 있어서 '조화사회', '과학발전관'을 강조하는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翟卫华, 「加强和改进思想政治工作推进社会主义和谐社会建设」, 『思想政治工作研究』, 2008年7期.; 张艳新, 「论意识形态建设在建设和谐社会中的重大意义」, 『思想政治工作研究』, 2009年1期.; 司春燕, 「社会转型期的心理失衡与和谐社会心理构建」, 『思想政治工作研究』, 2010年7期.

한, 노조는 ‘노동자 일방(一方)’의 이익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 이익을 협조(协调)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sup>27)</sup>

‘베이징 전력공사(北京电力公司)’ 서기 천푸는 기업과 공장에서 이데올로기 영역의 투쟁에 있어서 기층 당 조직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상정치공작의 이론 건설, 당원 대중 청소년에 대한 사상정치교육, 사회적 이슈와 노동자 생활에 대한 관심, 실사구시의 관점 등을 강조한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이슈와 노동자 생활에 해당하는 국유기업 개혁, 노동자 정리해고와 재취업, 주택제도 개혁 등의 문제에 대하여, 기층 당 조직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고충을 해결하여, 대중이 ‘파룬공(法轮功)’과 같은 “반동사조(反动思潮)”에 휩쓸리지 않도록 사상정치공작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1990년대 전개된 국유기업 개혁과 단위체제 해체가 가져올 기업과 공장 층위에서의 권익수호와 안정유지의 문제를 기층 당 조직이 지도하는 사상정치공작을 통해서 돌파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sup>28)</sup>

이렇게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와 함께 사상정치공작을 전개하는 주체로서 노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노조는 철저히 기층 당 조직의 지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노조는 진정한 노동자의 권익수호의 대변자라기보다는 당의 지도를 받아서 노동자의 권익수호가 노조의 틀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절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동시에, 노조는 노동자들이 시위, 파업, 태업 등의 형태로 ‘제도 밖’에서 권익수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안정유지에도 기여하도록 그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sup>29)</sup>

넷째, 권익수호에 있어서 ‘합법성’에 대한 강조이다. 기업과 공장의 노조, 기층 당 조직, 「사상정치공작 연구회」가 주체가 되는 사상정치공작은 권익수호와 안정유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정치적 경제적 이슈에 있어서 ‘합법성’을 강조한다. 이는 앞서 기층 당 조직이 지도하는 노조의 역할이 곧 노동자의 권익수호가 ‘제도 바깥’으로 분출하는 것을 막

27) 何广亮, 「构建和谐劳动关系中的工会作为」, 『思想政治工作研究』, 2011年9期.

28) 陈溥, 「基层党组织也要重视意识形态工作」, 『思想政治工作研究』, 2000年2期.

29) 이외에도 권익수호와 안정유지와 관련된 사상정치공작에 노조와 기층 당 조직의 역할을 강조하는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倪豪梅, 「自觉做维护职工群众利益的实践者」, 『思想政治工作研究』, 2001年11期.; 河北省政研会课题组, 「转型升级中职工心理和情绪疏导调研报告」, 『思想政治工作研究』, 2017年9期.

고, 노조라는 제도적 틀 속으로 수렴되어 '합법성'을 획득하면, '법치(法治)'를 강조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권익수호의 위험도는 대폭 낮아지고, 권익수호와 안정유지의 문제는 통치 안정성을 위협하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전한 '법률적 행정적 문제'가 된다.

'청두철로 분국 시창남역(成都铁路分局西昌南站)'의 란중청(藍中成)은 노동자의 권익수호는 단지 합법적 권익 주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 권익'과 '합법적 행사(行使)'가 결합하여야 하며,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지적한다. 즉, 권익수호는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경영자와 노동자 사이의 '중간자'로서 노조는 경영자와 노동자가 '윈앤윈(win and win)' 할 수 있도록 역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sup>30)</sup>

'샤먼 궈련공장(厦門卷烟厂)' 장징샹은 여성 노동자의 권익수호에 있어서 역시 '합법성'과 노조라는 제도적 틀을 강조한다. 그는 개혁기 경제성장의 혜택을 노동자가 제대로 누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여성 노동자는 열악한 임금 수준과 노동 조건에 처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2000년대 초 국유기업 개혁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는 해고, 보조금 지급, 재취업 과정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권익수호 행동을 독자적으로 '불법적'으로 전개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기층 당 조직 지도하의 노조가 주도하는 사상정치공작을 통해서 여성 노동자에게 권익수호와 관련된 '합법성' 교육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지도사상은 곧 '조화사회'여야 한다고 주문한다.<sup>31)</sup>

'상하이 기계전기 노조(上海机电工会)' 주석 췌산후는 21세기 들어서 '상하이 전기 그룹(上海电气集团)'은 10년 연속 두 자리 숫자의 고속 성장을 유지해왔는데, '노동관계 경보메커니즘(劳动关系预警机制)'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노동관계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상하이 전기 그룹 내부에서 부문 간, 상하 간 구축되어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수호를 '관리'할 수 있었던 노동관계 경보메커니즘이란 곧 임금체불, 실업, 복지약화 등 다양한 문제로 불만을 가진 노동자들이 시위, 파업, 태업 등 집단행동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경보메커니즘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사한 상황에

30) 藍中成, 「“维权”要坚持“二维论”」, 『思想政治工作研究』, 2003年11期.

31) 张京湘, 「维护女工权益构建和谐企业」, 『思想政治工作研究』, 2007年8期.

처한 노동자를 사전에 발견하여 노조와 기층 당 조직 주도로 ‘합법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집단행동을 사전에 방지하는 메커니즘이다.

이상에서 『思想政治工作研究』에서 2000년대 제기된 권익수호와 안정유지 문제와 관련된 논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서, 이 시기 노조, 기층 당 조직,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당 건설과 사상정치공작의 중요성’, ‘삼개대표론 및 과학발전관 등 국정이념’, ‘기층 당 조직 및 노조의 역할’, ‘합법성과 법률적 보호’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사상정치공작을 전개하였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의 개별적인 기업과 공장 층위 활동을 분석하도록 한다.

#### IV. 「안강 사상정치공작연구회」의 사례

이 장에서는 중국의 대표적인 중공업 기업 안산강철의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 기업현장에서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의 활동을 분석하고, 2000년대 초 ‘권익수호’, ‘안정유지’의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는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대응을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안산강철은 중앙기업(中央企業)으로 국무원(國務院) ‘국유자산 감독관리 위원회(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가 해당 소유권을 보유 행사하는 교통, 화학, 금속, 기계, 병기, 건설, 금융, 에너지 분야의 초대형 기업 중의 하나이다.<sup>32)</sup> 국가는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들 중앙기업에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를 설치하고 소속 노동자에 대한 사상정치공작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와 경제에 국가 이데올로기를 투사했다.

안산강철은 1914년 4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가 만든 안산제철소(鞍山製鐵所)로 시작되었다. 1933년 쇼와제강소(昭和製鋼所)로 이름을 바꿨고, 1945년 2차 대전 종전 후 국공내전(國共內戰)이 한창이던 1948년 공산당 지배하에 들

32) 안산강철의 정식 명칭은 ‘안강그룹 유한공사(鞍鋼集團有限公司 <http://www.ansteel.cn/>)’이다. 또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현재 97개 중앙기업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링크를 참고, 「央企名錄」 <http://www.sasac.gov.cn/n4422011/n14158800/n14158998/c14159097/content.html> (2022년 3월 8일).

어간 후 안산강철로 다시 이름을 바꿨고, 개혁기 들어서 국유기업 개혁을 거쳐서 오늘 날에 이른다.<sup>33)</sup>

이 장에서 안산강철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의 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鞍钢志·1986-2008』(鞍钢史志编纂委员会 编, 冶金工业出版社, 2008)이다. 이 자료는 1986-2008년 시기 안산강철의 생산, 경영, 당 조직, 노동자 생활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을 싣고 있는 자료로서, 서언, 범례, 총술(总述), 1986-2008년 대사기(大事纪), 생산, 경영, 기술개조, 과학기술 연구, 기업관리, 중국공산당 안산강철 기층조직, 대중단체 조직, 직공 생활, 상장회사, 기층단위, 인물, 부록으로 구성되어있다.

『鞍钢志·1986-2008』에 따르면, 1983년 '안강 직공 사상정치공작 연구회(鞍钢职工思想政治工作研究会)'가 최초 설립되었고, 2006년 '안강 당 건설 사상정치공작 연구회(鞍钢党建思想政治工作研究会)', 이하 안강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로 개명되었으며, 산하에 6개 연구학조(研究学组)가 설치되어있고, 기층단위에도 상응하는 연구분회가 200여 개 설치되어있었다.

1986년 이후 「안강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덩샤오핑 이론과 '삼개대표' 사상, '과학발전관' 등에 기초하여, 시기마다 제기되는 도전에 대응하는 사상정치공작을 수행했다.

첫째, 1995~2007년 「안강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대토론평작(大讨论工作)'을 전개했다.<sup>34)</sup> 이것은 안산강철의 경영진, 간부, 노동자 등 모든 직원들이 참가해서, 안산강철의 생산, 경영, 관리와 노동자의 '사상해방'과 '관념변화'와 같은 중대 문제를 일련의 토론회를 통해서 논의하는 사상정치공작의 일환이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 시기는 국유기업 개혁과 단위체제 해체의 결과 불평등과 차별에 저항하는 사회적 저항이 권익수호의 형태로 표출되고 이에 안정유지를 위한 국가의 사상정치공작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이 토론회는 기존의 '철밥그릇(铁饭碗)'과 '공장의 주인은 노동자(工厂的主人翁是工人)'과 같은 사회주의 시기의 관념을 바꾸는 한편, 효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시

33) 「鞍钢集团有限公司」<https://baike.baidu.com/item/%E9%9E%8D%E9%92%A2%E9%9B%86%E5%9B%A2%E6%9C%89%E9%99%90%E5%85%AC%E5%8F%B8/22364248?fr=aladdin> (검색일: 2022년 2월 28일)

34) 이하 '대토론평작'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고. 鞍钢史志编纂委员会 编, 『鞍钢志·1986-2008』, 冶金工业出版社, 2008, 428~429쪽.

장경제의 시대에 적합하도록 사상을 해방해야 한다는 기초에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96년과 2000년 「안강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안강을 어떻게 진흥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업의 주인이 되어 안강의 진흥에 공헌할 것인가’, ‘15차 당대회 정신을 어떻게 관철하여 개혁을 심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제고할 것인가’ 등의 토론회를 전개했다.

또한, 2001년과 2002년에는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전후하여 ‘중국의 WTO 가입, 안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WTO 가입 후 안강의 생존발전 방안’ 등의 토론회를 통해서, 국내외 경쟁 상황과 안산강철의 현존 문제점 등을 점검하였고, 이를 기초로 자료를 수집하여 『WTO 지식독본(知识读本)』을 편찬하여 노동자에게 배포하여 학습하게 했다. 2005년에는 『안강 10년 대토론 자료 회편(鞍钢十年大讨论资料汇编)』을 발행하였다.

둘째, ‘간부 이론교육’을 위한 사상정치공작을 전개했다. 간부는 원래 국가기관, 군대, 사회단체, 과학 문화 단체 등에서 일정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직인사’를 가리키는데, 사회주의 시기에는 농민 노동자 등의 대중(群众)과 구분되는 존재였다. 그런데 실제로 기업과 공장 층위에서는 간부는 숙련도 높은 상층 노동자나 전문 기술직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고, 이들 간부는 작업현장(车间)에서 비교적 높은 직급을 차지하며 일반 노동자를 지도하는 존재였다. 따라서, 포스트사회주의로의 체제전환 가속화를 배경으로 대두된 권익수호가 분출하는 상황에서 국가는 이들 간부에 대한 이론교육을 강화하여 노동자 전체에 대한 사상정치공작을 전개하고자 했던 것이다.

특히, 안산강철과 같이 2008년 현재 14만 명이 넘는 직원 수, 20개의 자회사, 31개의 소속단위를 거느린 초대형 중공업 기업의 경우, 체계적 생산, 경영, 관리를 위해 노동자 내부에 엄격한 위계 구조의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간부의 일반 노동자에 대한 영향력은 사상정치공작의 전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sup>35)</sup>

이에 따라, 2000~2006년 시기에는 「안강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국정이념 ‘삼개대표’ 사상에 기초하여 간부 이론교육을 수행했다. 특히 당시 중앙정부 주도로 시행된 ‘동북진흥(东北振兴)’은 간부 이론교육의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 주지하다시피, 동북지역의 공업기지는 건국 이전부터 형성되었으며, 건국 초기 소련이 중공업 기지 건설을 지

35) 鞍钢史志编纂委员会 编, 2008, 1쪽.

원한 '156항 중점공정(156项重点工程)'을 통해서 중국을 대표하는 중공업 기지로 부상하였는데, 개혁기 들어서 확산된 시장경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쇠락을 거듭하여, 선양(沈阳) 다롄(大连) 창춘(长春) 하얼빈(哈尔滨) 등 동북지역 중공업 도시들은 1990년대 중반 '해고의 도시(下岗之城)'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sup>36)</sup>

실제로 사회주의 시기 '공화국의 큰아들(共和国长子)', '공화국 장비부(共和国装备部)'라고 불리며 중국의 대표적 중대형 중공업 기업과 노동자들이 밀집된 동북지역은 1990년대 중후반 상당수 기업의 도산과 조업 정지 잇달아 발생하였다. 당시 선양시 테시구 노후공업기지 개조를 주도했던 왕전중(王振忠)에 따르면 2002년 '동북진흥' 정책이 추진될 무렵 테시구는 30만 명의 전체 노동자 중 절반이 실직 상황이고, 1100여개 중대형 기업의 부채율이 90%에 달할 정도였다고 할 정도였다.<sup>37)</sup>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추진된 '동북진흥' 정책의 핵심내용은 '노후공업기지(老工业基地) 개조'로 이 지역 국유 기업의 산업구조조정과 노동자 신분 변화였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의 파업, 시위, 태업 등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안강 사상정치공작 연구회」 '삼개대표' 사상을 기초로 간부 이론교육을 전개한 것은 곧 '동북진흥' 정책의 노후공업기지 개조에 따라 폭증한 노동자의 파업, 시위, 태업 등의 저항이 권익수호의 형태로 표출되는 것에 대해서, 안정유지의 관점에서 국가가 간부들에게 이론교육을 하고 궁극적으로 이들이 일반 노동자들에게 사상정치공작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삼개대표' 사상은 공산당이 노동자만이 아니라 '선진생산력을 대표하는 자본가와 중간계층'도 포괄하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권익수호를 외치는 노동자에게 조속히 시장경제 적응하여 자본가와 중간계층이 되라는 안정유지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것이다.

셋째, 「안강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권익수호와 안정유지를 중심으로 연구와 선전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관련 문건, 자료, 논문, 저서, 학술지를 발행했다.<sup>38)</sup>

36) 선양 테시구(铁西区)를 사례로 동북 노후공업기지 개조의 문제를 다룬 연구는 다음을 참고. 박철현, 「중국 개혁기 공간생산 지식의 내용과 지형: 선양시(瀋陽市) 테시구鐵西區) 노후공업기지의 개조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7권 제1호, 2013.

37) 王鴻諒, 「重返铁西区: 从土地开始的故事」 <http://www.lifeweek.com.cn/2007/1105/19980.shtml> (검색일: 2022년 3월 1일)

38) 이하 내용은 다음을 참고. 鞍钢史志编纂委员会 编, 2008, 435~437쪽.

2001년 「안강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논문 「당이 지도하는 사회주의 국유기업 발전 진흥의 길을 흔들지 말고 굳건히 가자」을 작성하고 공산당 창건 80주년 기념 전국 사상 정치공작 이론 연구토론회에 참가하여, 사회와 경제의 쇠락이 진행되던 당시 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의 기업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정유지 사상정치공작을 수행했다. 2008년에는 「역사적 전환기에 안산강철은 과학발전과 전면 진흥의 길을 걷는다」는 논문을 통해서, 2007년 10월 17차 당 대회를 통해서 당장으로 삽입된 ‘과학발전관’을 사상정치공작의 핵심내용으로 수용하여, 분출하는 권익수호에 대응하여, ‘조화로운 노동관계(和谐劳动关系)’ 건설을 목표로 하는 노동권 보호를 위한 일련의 정책을 제시한다.<sup>39)</sup>

2006~2008년 시기 기업 내부에서 사상정치공작 관련 865편의 논문을 모집했고, 매년 선별하여 『안산강철 당 건설 사상정치공작 우수 논문집』을 출판하였다.

특히, 「안강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1985년부터 학술지 『안강정공연구(鞍钢政工研究)』, 이하 안강정공연구』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안강정공연구』는 랴오닝성(辽宁省) 내부간행물로서 초대형 중공업 기업 안산강철의 각 기층단위 당 지부(支部)까지 보급되었다. 『안강정공연구』는 “삼개대표 사상과 과학발전관에 입각해서 사상정치공작 종사자의 연계와 이론연구를 강화하고, 정확한 방향으로 여론을 인도하고, 안산강철의 모범적 사상정치공작 추진을 위해서” 창간되었고, ‘삼개대표 학습’, ‘대토론 마당’, ‘서기 필담’, ‘현장에서’, ‘경영의 길’, ‘학습 마당’, ‘핫이슈 분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안강정공연구』는 안산강철 내부 경영진, 간부, 일반 노동자들 사이에서 사상 정치공작이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현장 일반 노동자의 권익수호 목소리를 담고 이에 대응하는 ‘삼개대표’ 사상과 ‘조화사회’ 등 당시 국정이념이 투영된 당의 안정유지 이데올로기를 제시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수호가 파업, 시위, 태업 등의 ‘제도 바깥’으로 분출되는 것을 막고 ‘합법성’의 틀 안에서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한 것이다.

39) 2000년대 초 진행된 일련의 노동권 보호와 관련된 정책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 김재관, 「21세기 중국 노동자의 집단적 저항과 국가의 대응: 노동계약법과 단체협상제도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22권 제2호, 2020.

## V. 결론

본 연구는 사회적 저항이 급증하는 권익수호로 분출되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안정 유지가 핵심적인 국정목표로 제기되던 2000년대 들어서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의 활동을 무엇이었나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개혁기에 막 들어선 1983년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기업과 공장 층위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초기 체제전환과 관련된 '공장장 책임제', '정당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 '텐안먼 사건'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응하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연구 선전하는 기구로 설립되었다. 본격적인 체제전환이 국유기업 개혁과 단위체제 해체로 진행되는 1990년대에는 주식제 도입, '현대적 기업제도', '정리해고', '주택제도' 등의 이슈에 대응하여 사상정치공작을 수행했다.

본 연구의 대상 시기인 2000년대는 이전 시기 국유기업 개혁과 단위체제 해체의 결과로 증가한 불평등과 차별에 저항하는 권익수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국가의 통치 안정성에 위협이 될 정도였고 국가는 이에 대응하는 안정유지를 핵심적인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의 활동은 권익수호와 안정유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思想政治工作研究』에 실린 관련 논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안정유지에 있어서 당 건설과 사상정치공작이 강조되는데, 이는 이 시기 사상정치공작은 반드시 당이 주도해야 하므로 국민경제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유기업 등 주요 기업 노동자에 대한 사상정치공작은 당이 주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조직, 역량, 체계를 정비하는 당 건설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강조되는 것, 사상정치공작은 단지 추상적인 '애국주의', '집체주의', '사회주의' 교육이 아니라, '삼개대표', '조화사회', '과학발전관' 등과 같이 당시 중공중앙에 의해 제시된 구체적인 '국정이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사상정치공작은 직접적인 주체는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이지만 실제로 기업과 공장 층위에서 기층 당 조직과 노조가 결합해야만 비로소 실효적인 사상정치공작의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노조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자

본가 사이에서 이익을 ‘협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권익수호의 ‘합법성’이 특히나 중요하게 거론되는데, 이는 사회적 저항이 파업, 시위, 태업 등의 형태로 ‘제도 바깥’에서 표출되는 위험을 경고하고, 권익수호는 반드시 당이 지도하는 노조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해서,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권익수호와 안정유지의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행정적 문제’로 수용하도록 사상정치공작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적 추상적 층위의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의 활동이 구체적인 기업과 공장 층위에서 진행되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鞍钢志·1986-2008』을 자료로 동북 지역의 대표적 초대형 중공업 기업 안산강철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안산강철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중앙기업으로,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사회와 경제에서 가진 중요한 위상을 고려하면 해당 기업과 소속 노동자에 대한 사상정치공작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鞍钢志·1986-2008』를 통해서 연구 대상 시기 권익수호와 안정유지 관련하여 「안강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했다. 우선, ‘대토론평작’을 통해서 노동자의 ‘사상해방’과 ‘관념변화’를 유도했고 노동자들이 ‘철밥그릇’과 ‘공장의 주인은 노동자’와 같은 기존 사회주의 시기의 관념을 폐기하고 시장경제 시대의 효율과 경쟁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했다. 다음으로, 일반 노동자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가진 간부를 대상으로 이론교육을 시행하여, 이들이 ‘삼대대표’ 사상을 기초로 당시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던 ‘동북진흥’ 정책을 수용하여 기업 도산, 조업 정지, 정리 해고에 저항하는 노동자의 파업, 시위, 태업 등이 ‘합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역할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강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연구와 선전 기구로서 문건, 자료, 논문, 저서는 물론이고, 특히 『안강정공연구』를 발행하였고, 노동자의 권익수호가 ‘제도 바깥’으로 분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합법성’의 틀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상정치공작을 전개하였다.

이상 2000년대 권익수호와 안정유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된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의 활동을 전국적 추상적인 층위와 구체적인 개별 기업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향후 필자는 글로벌 차원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를 배경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중국 경제의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이 시작되었고, 동시에 고성장 시대의 시대는 지나고 상대적 저성장이 당연하게 된 바오빠(保八)와 뉴노멀(新常态)의

시대에 들어서는 2010년대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의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시진핑(习近平) 정부 시대 기업과 공장에서 노동자에 대해 투사된 국가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재관, 「21세기 중국 노동자의 집단적 저항과 국가의 대응: 노동계약법과 단체협상제도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22권 제2호, 2020
- 박철현, 「중국 개혁기 공간생산 지식의 내용과 지형: 선양시(瀋陽市) 테시구鐵西區) 노후 공업기지의 개조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7권 제1호, 2013
- 박철현, 「개혁기 중국의 국가와 노동자 교육: 1980년대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의 설립과 활동을 중심으로」, 『도시연구』, 제23호, 2020
- 박철현, 「중국의 체제전환과 「사상정치공작 연구회」: 1990년대 도시개혁 시기 국유기업 개혁과 단위체제 해체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제26호, 2021
- 이희옥, 「3개대표론과 중국사회주의의 변화」, 『중국학연구』, 26권, 2003
- 장윤미, 「중국 ‘안정유지(維穩)’의 정치와 딜레마」, 『동아연구』, 64권, 2013
- 藍中成, 「“维权”要坚持“二维论”」, 『思想政治工作研究』, 2003년11期
- 刘建军, 「思想政治工作应对突发事件维护社会稳定的对策性思考」, 『思想政治工作研究』, 2009년9期
- 刘云山, 「在国有企业思想政治工作研讨班上的讲话」, 『思想政治工作研究』, 2000년1期
- 本刊编辑部, 「发刊词」, 『思想政治工作研究』1期 1983
- 司春燕, 「社会转型期的心理失衡与和谐社会心理构建」, 『思想政治工作研究』, 2010年7期
- 鞍钢史志编纂委员会 编, 『鞍钢志·1986-2008』, 冶金工业出版社, 2008
- 倪豪梅, 「自觉做维护职工群众利益的实践者」, 『思想政治工作研究』, 2001년11期
- 张京湘, 「维护女工权益构建和谐企业」, 『思想政治工作研究』, 2007년8期
- 张艳新, 「论意识形态建设在建设和谐社会中的重大意义」, 『思想政治工作研究』, 2009년1期
- 褚克艰, 「中央编办确定中国职工政研会机关机构改革方案」, 『政工研究动态』, Z1, 2002
- 翟卫华, 「加强和改进思想政治工作推进社会主义和谐社会建设」, 『思想政治工作研究』, 2008년7期
- 钟祖企, 「关于国有企业党建工作新情况新问题的调研报告(上)」, 『思想政治工作研究』, 2003년3期

- 钟祖企, 「关于国有企业党建工作新情况新问题的调研报告(下)」, 『思想政治工作研究』, 2003年3期
- 周多刚, 「正确处理人民内部矛盾是构建和谐社会的重大课题」, 『思想政治工作研究』, 2006年3期
- 陈溥, 「基层党组织也要重视意识形态工作」, 『思想政治工作研究』, 2000年2期
- 彭茂全, 「用“三个代表”统领维权工作」, 『思想政治工作研究』, 2003年2期
- 何广亮, 「构建和谐劳动关系中的工会作为」, 『思想政治工作研究』, 2011年9期
- 河北省政研会课题组, 「转型升级中职工心理和情绪疏导调研报告」, 『思想政治工作研究』, 2017年9期
- Terry Sicular, “The Challenge of High Inequality in China”, *Inequality in Focus*, August, 2013
- 「社会团体」 <https://baike.baidu.com/item/%E7%A4%BE%E4%BC%9A%E5%9B%A2%E4%BD%93/117608?fr=aladdin> (검색일: 2022년 3월 1일)
- 「鞍钢集团有限公司」 <https://baike.baidu.com/item/%E9%9E%8D%E9%92%A2%E9%9B%86%E5%9B%A2%E6%9C%89%E9%99%90%E5%85%AC%E5%8F%B8/22364248?fr=aladdin> (검색일: 2022년 2월 28일)
- 「央企名录」 <http://www.sasac.gov.cn/n4422011/n14158800/n14158998/c14159097/content.html> (2022년 3월 8일)
- 王鸿谅, 「重返铁西区: 从土地开始的故事」 <http://www.lifeweek.com.cn/2007/1105/19980.shtml> (검색일: 2022년 3월 1일)
- 「政工师」 <https://baike.baidu.com/item/%E6%94%BF%E5%B7%A5%E5%B8%88/7699451?fr=aladdin> (검색일: 2022년 3월 1일).
- 「中共中央关于加强党的执政能力建设的决定」 [http://www.gov.cn/test/2008-08/20/content\\_1075279.htm](http://www.gov.cn/test/2008-08/20/content_1075279.htm) (검색일 : 2022년 3월 2일).
- 「中国思想政治工作研究会历史沿革」 [http://siyanhui.wenming.cn/syzhq/jggk/201012/t20101228\\_39948.shtml](http://siyanhui.wenming.cn/syzhq/jggk/201012/t20101228_39948.shtml) (검색일: 2022년 2월 28일)
- 「China internal security spending jumps past army budget」 <https://www.reuters.com/article/us-china-unrest-idUSTRE7222RA20110305> (검색일: 2022년 3월 1일).
- 「GDP growth (annual %) - China」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end=2010&locations=CN&start=2000> (검색일 : 2022년 3월 2일)

「Gini index: inequality of income distribution in China from 2004 to 2019」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50400/inequality-of-income-distribution-in-china-based-on-the-gini-index/> (검색일: 2022년 3월 1일).